

문헌에 기록된 제주의 세 여인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김 준 형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三多島와 濟州民
2. 문헌에 나타난 제주의 세 여인, 그
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 1) 齒耳鼻咽喉 분야의 名女醫, 張德
 - 2)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上京하
여 擊鎗한 官妓, 昆生
 - 3)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학적 형상
화, 萬德
3. 제주의 세 여인, 그리고 비예의 섬
濟州道

<국문 요약>

이 글은 사대부 사이에 널리 이야기되었던 세 명의 제주 여인을 통해 당시 제주 백성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가를 밝혔다. 세 여인은 장덕, 곤생, 만덕이다.

제주도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이다. 하지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곧 슬픔의 다른 이름일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자연은 곧 삶을 위협하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제주 백성들에게 죽음은 일상일 수밖에 없었다.

장덕은 당대 최고의 여의사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장덕이 행한 신기한 의료 행위뿐이다. 그것도 지극히 간략하다. 장덕이 가졌던 인간적인 면은 없다. 문인들은 단지 신통한 제주에만 관심을 드러낼 뿐이다.

곤생의 세 명은 제주목사에게 죽임을 당했다. 곤생은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격쟁을 했다. 당시 떠들썩한 이 사건은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문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있던 동지를 비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김진구의 사랑을 받았던 기생이지만, 그들은 문인들 사이에는 단순히 ‘그것’일 뿐이었다.

반면 만덕은 문인들이 다투어 기록을 남긴다. 문인들의 이데올로기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이다. 만덕은 제주에서 신격화되어 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덕은 사대부 사이에는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대신 민중들에게서는 조금씩 멀어져 갔다.

제주는 비애의 섬이다. 굳이 드러난 아름다움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제주, 장덕, 곤생, 만덕, 비애의 섬

1. 三多島와 濟州民

三多島.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가 많아 제주도를 삼다도라 한다. 애초 삼다도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사람들은 삼다도란 말을 다분히 낭만적으로 쓰고 있는 듯하다. 삼다도는 곧 아름다운 제주도와 같은 의미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기실 三多는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 달가운 말일 수 없다.

바람이 많고, 돌이 많다! 그것은 농경사회에서 좋은 자연환경이 아니다. 농경사회에 반하는 자연환경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이 아름다운 풍광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야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운 풍광에 반비례한다. 풍광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들의 삶은 더더욱 고달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람이 많고 돌이 많다는 것’은 척박한 자연에서 그 자연을 이기며 살아야했던 당시 제주민의 피와 땀의 다른 말인 셈이다. 사면이 바다이면서도 소금이 없어 진도나 해남에서 그것을 구해와야 했던 섬사람들. 사방이 물로 덮여 있으면서도 정작 마실 물이 없었던 섬사람들. 마실 물을 찾아 몇 십리를 다니는 것은 예사였기에 5리(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떠오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물을 구했다며 좋아했던 섬사람들.¹⁾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 이면에 숨겨진 섬사람의 삶이었다.

여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李元鎮은 『耽羅志』에서 제주에는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다[女多男少]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장삿배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서 생활의 기반을 찾아야 했던 제주 남성은 배를 타야만 했다. 하지만 뱃길이 험하다 보니 漂沒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민들이 딸 낳기를 중히 여긴 것도 이

1) 金淨, <濟州風土錄>.

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²⁾ 이러한 기록은 『탐라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崔簿의 『漂海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다.

최부는 제주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 때 그와 함께 배를 탔던 제주민 李孝枝와 대화를 나눈다. 효지는 당시 제주 남성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우리 제주도는 아득히 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어 수로로 구백여리나 됩니다. 또한 어느 바다보다도 파도가 세차고 거세답니다. 공물을 실은 배나 장사하는 배는 끊임없는 오기는데, 그 중 표류되거나 침몰되는 배가 열에 대여섯이나 된답니다. 섬사람들은 앞서 죽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라도 죽고야 말지요. 그런 까닭에 경내에는 남자의 무덤이 매우 적은 게지요. 여염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세 배나 많습시다. 부모된 자들도 딸을 낳으면 반드시 “내게 효도를 잘할 애”라고 말하고, 아들을 낳으면 모두가 “이 놈은 내 아이가 아니고, 고기밥이야”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이란 하루살이가 와서 사라지는 것과 같죠. 비록 지금이 평시였다 해도 어찌 집안에서 죽을 마음이나 가졌겠습니까?³⁾

죽음이 일상이었기에 죽음에 초월해있는 듯한 제주 남성의 목소리가 여실히 그려져 있다. 뱃일을 나가면 열에 5~6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삶을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이 일상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늘 죽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 없다. 오늘 ‘만’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일은 또다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다. 또한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화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면 왜구의 잦은 노략질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고종실록』에 쓰인 다음과 같은 내용도 이를 방증한다.

- 2) 李元鎮, 『耽羅志』, “公私運販之船, 絡繹不絕, 海路險遠, 屢致漂沒, 故州人以生女爲重.”
- 3) 崔簿, 『漂海錄』 1488년 윤정월 13일, “我州邈在大海中, 水路九百餘里, 波濤視諸海尤爲洶暴. 貢船商舶, 絡繹不絕, 漂沒沈溺,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 則必死於後, 故境中男墳最少. 閭閻之間, 女多三倍於男. 爲父母者, 生女則必曰: ‘是善孝我者.’ 生男則皆曰: ‘此物非我兒, 乃鯨鱉之食也.’ 我等之死, 如蜉蝣出沒雖在平日, 亦豈以死於隴下爲心哉.”

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全羅監司 李憲植과 濟州牧使 沈遠暉이 올린 狀啓를 보니, ‘加波島에서 전복을 따던 일본 배 6척이 慕瑟浦에 와서 정박하고 일본 선원들이 제멋대로 상륙하여 촌락에 뛰어 들어와서는 닭돼지를 약탈했고, 칼을 빼들고 집주인 李晚松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으며, 모슬포 백성 金成萬, 鄭宗武, 李興福 등도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배에 탔던 40여 명이 달려나와서 본 모슬포의 譏察將 文在旭을 위협하여 강제로 화해의 증표를 받아내고는 즉시 그 섬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⁴⁾

議政府에서 아뢰기를, “全羅監司 閔正植과 濟州前牧使 趙均夏의 狀啓를 연이어 보니, ‘일본 배들이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걸뺏으면 약탈하며 어부들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넣었습니다. 백성들이 배에 올라 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써 인명을 많이 해쳤으며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하여 가는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므로 온 섬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형편입니다.(하략)’”

제주 남성들에게 죽음은 삶처럼 일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보니 자연히 제주에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3배나 많았던 것이다.⁶⁾ 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남성의 삶이 고단했음을 반증하는 예인 셈이다.

삶의 고단함은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남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람 많고 돌 많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려면 자연히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강한 생활력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제주 여성들의 비애이기도 하다. 결국 삼다도라는 말은 제주민의 비애를 대변하

4) 『고종실록』 고종 24년(1887) 8월 17일.

5) 『고종실록』, 고종 28년(1891) 8월 22일.

6) 제주 남성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취하는 양상을 기록한 문헌은 더러 보인다. 金熙洛의 『故寔』 <奉教製進萬德傳>에 “제주 풍속에 한 남자가 세 명의 여인을 취한다[厥俗一男三女]”고 한 기록이나, 李元鎮의 『耽羅志』에 “중들도 모두 가정을 갖는데, 절 근처에 처자를 둔다. 비록 거지라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처첩을 둔다[僧皆作家, 寺傍以畜妻子, 雖行乞者, 並畜妻妾]”는 기록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풍습은 남성이 적었던 당시 배경에서 어쩌면 당연히만 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현상일 수밖에 없다.

는 말인 셈이다.

삼다의 악조건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또한 문헌에 기록된 제주민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가? 하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체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민.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려낸 문인들의 기록을 통해 제주민의 삶을 엿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제주민에 주목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민초들의 삶을 문인들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민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귀퉁이에 조각처럼 남겨진 기록에서 더러 제주민을 언급한 대목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를 찾아내서 문인들은 어떠한 인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고, 또한 그 인물들은 어떠한 목적에서 다루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제주민의 삶의 애환을 읽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선 제주의 세 여성에 초점을 둔다. 張德, 昆生, 萬德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문인들 사이에 비교적 널리 회자되었던 인물들인데, 그 문학적 형상화 방식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를 통해 제주민에 대한 문인들의 평가를 읽어낼 수 있으며, 민초로 살아갔던 제주민의 삶의 일단을 엿볼 수 있으리라 본다.

2. 문헌에 나타난 제주의 세 여인, 그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1) 齒耳鼻咽喉 분야의 名女醫 張德

成俔(1439~1504)의 『慵齋叢話』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조정에서는各司各官의 나이 어린 계집종을 뽑아 媿民서에 귀속시키고 의서를 가르쳤다. 이들을 여의라 명명하고, 부인의 병을 고치게 하였다. 제주에서

은 여인도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의술은 알지 못하였으나 齒蟲을 잘 잡아냈다. 사대부 집에서 다루어 그를 불러들였다. 그녀가 죽자, 다른 한 여자가 그 기술을 전수 받았다. 나도 불러서 이를 치료하였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들어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은으로 만든 날카로운 물건으로 하얀 색의 자그마한 벌레를 꺼내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물건은 잇속에 집어넣지도 않고, 이에서는 피가 나지 않았다. 그 쉬운 것이 이러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술을 전하지 않았다. 비록 조정에서 죄로 다스려도 고하지 않았는 것을 보면, 이는 환술이고 정업은 아닐 것이다.⁷⁾

성현은 『용재총화』라는 필기집에 당시 자신이 보고들은 일을 기록해 놓았다. 성현이 만난 齒蟲을 잘 다스렸던 제주에서 올라온 한 여인, 그녀는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용재총화』에 실려 있다. 필기는 특성상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에, 천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성현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가 이름을 잊었거나, 혹은 이름조차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현이 관심은 다만 치충을 잡아내는 신기한 의료행위와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기술을 幻術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절하한다. 성현은 이름조차 드러내지 못한 한 인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단지 그의 환술에 성현은 눈길을 줄 뿐이다.

그렇다면 성현이 말한 제주 의녀는 누구인가? 그는 제주에서 온 張德일 개연성이 높다. 1492년 당시 右承旨 權景禧(1451~1497)가 성종께 아뢴 내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醫女 張德은 齒蟲을 제거하고 코와 눈 등의 부스럼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즈음에 장덕은 그 기술을 개인적으로 부리던 종[私婢 貴수]에게

7) 『慵齋叢話』 10권, “朝廷揀各司各官年少婢子, 屬惠民署, 教醫書, 名曰女醫, 以治婦人之病. 有一女, 來自濟州, 不知醫術, 有去齒蟲. 士大夫家爭相邀致. 其女死, 又有一女, 傳其業. 余亦招來治齒, 令人仰面開口, 而銀匕物出小白蟲, 匕不入齒, 齒不出血, 其容易如此. 又不傳其術於他人, 雖朝廷治罪, 而猶不告, 此必幻術, 而非正業也.”

전수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귀금이를 속량하여 여의로 삼아 그 기술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의 여의가 그를 좇았는데, 귀금이는 그 비법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필자요약 : 그 이유를 묻자, 귀금이는) 제가 7살 때에 처음으로 이 기술을 배웠는데,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직 능숙하게 익히지 못했을 뿐입니다.⁸⁾

제주 의녀 장덕에게 의술을 배운 귀금이가 다른 의사에게 기술을 전수하였는데, 다른 의사들은 그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 이에 조정에서는 귀금이를 불러 그 연유를 묻는다. 그러자 귀금이는 자신도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그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이 실록의 전부다. 이를 통해 볼 때, 『용재총화』에서 이야기한 제주 의녀는 장덕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실록』이 쓰여진 때[1492]와 성현이 살았던 시기[1439~1504]가 겹친다는 점, 의녀가 제주에서 왔다는 점, 의녀의 의료 기술 중 특히 치충을 잡아내는 데에 능숙했다는 점 등 실록에서 언급한 장덕과 『용재총화』의 제주 의녀는 유사한 대목이 많기 때

8) 『성종실록』 266권. 23년 6월 14일, “右承旨權景禧啓曰: ‘濟州醫女張德, 能去齒蟲, 如鼻眼凡病瘡處皆去之. 將死, 傳其術於私婢貴今, 國家贖爲女醫, 欲廣傳其術, 使二女醫從行, 貴今秘不傳. 近有黃乙者, 善治蟲毒而秘之, 刑問三次, 然後乃言. 女醫粉伊習其術而不及黃乙, 是不盡傳其術也, 請拷貴今問之.’ 命召貴今, 問曰: ‘使女醫二人從行, 汝秘不傳, 必欲獨擅其利也. 汝若固諱, 當拷掠鞫問, 其悉言之.’ 貴今曰: ‘我自七歲始學此術, 至十六歲乃成, 今我非不盡心教, 彼不能習耳.’”

장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1488년에 기록된 『성종실록』에는 ‘長德’으로 표기되어 있다. 반면 1492년에 기록된 『성종실록』이나 편찬연대가 정확치 않은 『靑坡劇談』에는 ‘張德’으로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張德’을 취한다.

장덕의 생몰년은 알 수 없다. 다만 1488년 9월 28일 『성종실록』에는 “잇병을 고치는 의녀 장덕은 이미 죽고 이제 그 일을 아는 자가 없느니, 이눈·귀 등 여러 가지 아픈 곳에서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람이면 남녀를 물론하고 抄錄하여 보내라”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장덕이가 급사하자 조정에서는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급히 구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덕이는 1488년 9월을 즈음하여 급사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문이다. 실록에서는 신통한 의료 기술이 후대로까지 전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것뿐이지만, 그 도정에서 우리는 뜻밖에 제주에서 상경한 제주 의녀 장덕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치충을 잘 잡아내던 장덕은 누구이며, 그의 의료 행위는 어떠하였는가?

앞서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장덕의 의료행위가 한갓 환술일 뿐 정업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것은 그가 치충을 쉽게 잡아내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신통한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성종실록』에서 의료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지 않고, 오직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귀금이에게만 전수해 주었다는 점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런데 귀금이의 진술을 보면 귀금 자신도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장덕에게 배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덕의 의료 기술이 남들이 보기에는 쉬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습득해야만 얻을 수 있는 난해한 기술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성현이 장덕의 의술을 환술이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덕은 당시의 치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장덕은 어떻게 의녀가 되었고, 그가 행한 의술은 어떠했는가?

여러 방향으로 문헌을 찾아보았지만, 장덕이가 어떠한 인물이고, 그가 어떻게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의녀가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成倪의 친구이면서 사돈이었던 李陸(1438~1498)이 편찬한 『靑坡劇談』에는 장덕의 삶의 편린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보인다.

내가 젊었을 때에 제주 사람 加氏를 본 일이 있었다. 그녀는 선비의 집을 드나들며 齒蟲을 잡아내었는데, 효험이 있었다 그 뒤에 가씨와 같은 고을의 官婢 張德이 가씨에게서 그 술법을 배웠다. 치통·콧병·눈병이 있을 때에는 수없이 많은 벌레를 잡아내는데, 벌레를 잡아냄에 따라 병도 또한 조금씩 나았다. 대낮에 침으로 핏줄을 찢러 벌레를 잡아내면 벌레는 꿈틀거리는데, 며칠동안 죽지 않았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것을 보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어찌서 그러한지 알

지 못하였다.

일찍이 대궐에 들어가서 이를 치료하였는데 효험이 있었기에 惠民署의 女醫로 삼았다. 그리고 나이 어린 여의 몇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지만, 끝내 전수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유독 장덕이 개인적으로 두었던 계집종 玉梅가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였는데, 장덕이 죽으면서 그 기술을 모두 옥매에게 전수해 주었기에 옥매는 그 기술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래도 옥매 또한 혜민서에 귀속되었던 것이다. 내 집이 그와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위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幻術이었다.⁹⁾

이록은 당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적어놓았다. 이 기록은 앞서 보았던 『용재총화』와 『성종실록』에 비해 장덕의 면모가 좀 더 확장되어 있다.

제주에서 온 사람 加氏의 의술이 매우 빼어났는데, 그 기술은 같은 고향 제주도의 관비 장덕에게 그대로 전수된다. 장덕은 가씨에게 배운 기술을 토대로 신통한 경지에까지 이른다. 장덕은 당시 최고의 의술을 발휘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효험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덕은 惠民署의 女醫로 발탁되어 의료 행위와 의술 교육을 담당한다. 하지만 아무도 장덕의 의술을 전수받지 못하고, 오히려 장덕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옥매가 그 기술을 전수받는다. 그래서 옥매도 혜민서에 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⁰⁾ 이록의 기록 역시 장덕의 의

9) 李陞, 『靑坡劇談』. 予少時, 見有濟州加氏者, 出入士族第, 出齒蟲有效. 其後同州婢張德, 學術於加氏. 凡齒痛及眼鼻有患, 出蟲無數, 病亦少愈. 白日以針接以筋鉤取蟲, 蟲輒搖躍, 數日不死. 人環立而視之, 皆莫知其所以. 嘗入大內, 治齒有驗, 命屬於惠民署爲女醫. 使年少女醫數人學其術, 竟無傳者. 獨有私婢玉梅者, 常雇於其家, 張德死而玉梅盡得其術, 亦屬惠民署. 家與予比隣, 觀其所爲眞幻術也.

10) 옥매는 『성종실록』에 거명된 귀금과 같은 인물로 보인다. 아마도 옥매가 혜민서로 옮겨가면서 이름을 귀금으로 달리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찌면 ‘귀금’이라는 이름은 당시 의녀의 어떤 직급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였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성종실록』에는 귀금이 의녀가 되기 이전인 1474년 윤6월 1일 『성종실록』에서 醫女 귀금은 이후 국상이 있을 때에 緣事 崔彦珍과 간통하여 杖 100대와 벌금을 내는 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1474년에 기록된 의녀 귀금은 1492년에 기록된 귀금과 다른 인물일 개연성이 높다.

술이 빼어났다는 점, 그 기술이 다른 의원에게 전수되지 못했다는 점, 유독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에게만 그 기술이 전수되었다는 점 등에서 『용재총화』와 『성종실록』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장덕이 어떻게 의술을 습득했고, 장덕이 처음으로 헤민서 여의로 뽑혀 들어갔다는 점은 『청파극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덕이 있기 전에 제주 여인 가씨가 사대부 집안을 돌아다니며 의술을 행했고, 그 기술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제주의 관기 장덕에게 전수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전문적인 의술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¹¹⁾

아무튼 장덕의 의술은 당대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덕의 이름은 여항간에 널리 회자되었고, 결국 궁중에서까지 그 기술을 인정하여 장덕을 헤민서 의녀로 발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성현이나 이륙과 같은 사대부들은 그를 불러 치료를 받았고, 그 기술이 신통하여 자신들의 필기집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신통하게 여긴 것이 제주 여인 가씨나 장덕이 아니다. 가씨와 장덕으로 이어지는 전문가의 영향 관계도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신이한 사실일 뿐이다. 결국 성현이

11) 필자는 조선 초기 제주도에서는 齒耳鼻咽喉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술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실록에는 제주도에서 유독 齒耳鼻咽喉와 관련된 기록이 다수 보인다. 예컨대 1430년 『세종실록』에는 ‘정의현의 여인 塞自尼가 눈에 들어 있는 벌레를 끄집어냈다’는 기록이 있고, 1431년 『세종실록』에는 ‘제주민 孝德이란 여인이 어두운 눈에 티를 없애고, 嚙齒候蟲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각주8에서 보았던 1488년 『성종실록』에서, 장덕이가 죽자 그를 대신한 사람을 급히 抄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역시 제주목사 許熙다. 조정에서 제주목사에게 명령을 내려 급히 齒耳鼻咽喉와 관련된 의원을 선발해 보내라고 했다는 점은 곧 제주도에 이미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상당히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덕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씨가 죽자 마침 가씨의 제자로 있던 장덕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고, 장덕은 스승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보여, 결국 조정에서는 장덕을 헤민서로 불러들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나 이륙의 시선은 사람이 아닌 특이한 사건에 한정된 것이다.

장덕이가 문헌에 기록될 수 있는 원인은 기이한 사실에 대한 사대부들의 博學的인 관심에 머물렀던 셈이다. 당시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던 여의사, 적어도 지금의 치과이비인후과 분야에서는 최고였던 여의사였지만 장덕이라는 인물은 관심조차 없었다. 성현이나 이륙의 시선은 특이한 행위에 멈춰 있다. 문학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물이지만, 사대부들은 인물보다는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애초부터 인물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사대부들에게 이데올로기적인 교훈을 드러내지 못하고 흥미로운 사건만 제시한 신분이 낮았던 여의사는 사대부들의 일회적인 흥미나 박학의 資로 놓여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한 제주의 한 여인도 필기라는 장르 안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2)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上京하여 擊錘한 官妓, 昆生

다음의 여인을 보자. 이름은 昆生으로, 제주의 官婢(官妓)다. 장덕과 마찬가지로 賤人이다. 곤생은 1705년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다양한 사료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곤생이 擊錘을 통해 제주목사 李喜泰(1669~?)를¹²⁾ 고소한 데서 비롯한다. 사건의 요점은 이희태가 곤비의 다섯 모녀 중 세 명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杖殺하였다는 것인데, 사료를 통해 당시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희태는 서울에서 첩과 조카를 거느려 제주에 부임한다. 하지만 조카는 실제 이희태의 자식이 아니라, 그가 데려간 첩의 전 남편의 아이였다.

12) 이희태는 숙종 28년 壬午年 謁聖試에서 장원을 한 인물이다. 당시 과거에 합격한 자는 9명인데, 甲科에는 李喜泰, 乙科에는 趙道彬韓永祚, 丙科에는 洪萬遇·洪禹瑞·任陸·李海朝·李緯·金萬謹으로 당대의 최고 문장가들이다. 이희태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든든한 문벌을 가진 인물들이며, 또한 후대에 이들은 모두 고위관직을 역임하였다. 김순동, 『韓國故事大典』, 회상사, 1969. 207쪽.

- ② 곤생이 이를 알고 倡設한 말을 하였는데, 회태가 이를 미워하여 항상 죽이려고 하였다.
- ③ 마침 몇몇 기생이 곤생과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곤생을 呈訴하였는데, 회태는 이 사안을 확장하여 제주관관대정현감·정의현감 등 제주의 모든 수령을 불러 곤생과 그의 딸 桂貞·次貞·三貞 등 다섯 모녀를 刑訊 한다. 그 중 세 사람은 형문을 받은지 2일이 못되어 죽는다.
- ④ 회태는 죽은 계정 등의 죄를 備局에 論報하고, 남은 죄인은 육지로 移配한다.
- ⑤ 그 뒤에 곤생은 바다를 건너와 擊鼓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 ⑥ 이 일이 알려지자, 전라감사 徐文裕는 묘당에서 일을 처리하기를 청한다. 그러나 우의정 李濡, 예조판서 尹世紀 등 관료들은 이회태를 적극적으로 구원한다.
- ⑦ 마침 제주목사 宋廷奎의 狀聞에 ‘형벌을 남용하여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개인적인 분노에서 나왔다’는 내용을 숙종이 보고 備忘記로 전교하여 이회태에게 죄를 묻는다.
- ⑧ 이회태는 황실수설하다가 사실대로 아뢴다.
- ⑨ 이회태는 관리라는 이유로 극형 대신 유배를 가고, 회태를 옹호한 이유 등은 별다른 죄를 묻지 않는다.

제주민의 격쟁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바다 건너 서울에까지 올라와 격쟁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사건을 접수 받은 조정에서는 이 일을 전라감사 徐文裕(1651~1707)에게 맡긴다. 그렇지만 전라감사는 관비에 의해 고소를 당한 전 제주목사의 일을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는지 조정에서 이 일을 다루도록 청한다. 전라감사는 『大明律』 “한 집안의 세 사람을 죽이면 公家를 가리지 말고 형벌을 주라(一家殺三人, 非指公家用刑)”는 조항에 따라 처리하기가 어려웠음직도 하다. 실제로 조정에서 이 일을 논의해야 할 때에도 당시 判府事 崔錫鼎(1646~1715)은 병 때문에 의견을 내지 않았고, 領府事 尹趾完(1635~1718)과 左議政 李龠(1645~1718)는 밖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는다.¹³⁾ 법과 현실 사이에서 결정을 짓지 못했던 당시 관료들의 고민이 그대로 느껴진다. 결

13)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9월 19일

국 조정에 남은 관료들이 이 일을 떠맡아 처리해야 했는데, 당시 조정에 남은 관료들은 이희태를 처벌하기보다 그를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법보다는 사대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위 ‘봐주기식 수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제주민은 육지로 나올 수 없는데 섬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격쟁한 죄목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 ① (李瀾) 곤생의 딸은 기생으로 모두 자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전후임 관리들의 눈에 든 다음, 요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이를 분하게 여기나 관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희태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까닭에 나서서 呈狀에 따라 심문하여 죄를 다스렸던 것입니다.¹⁴⁾
- ② (尹世紀) 섬 안에 사는 여인은 원래 서울로 올라올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바다를 건너 서울까지 올라와서 격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중략) 희태가 비록 사사로운 혐의로 장살을 했다고 해도 그 죄는 告身을 빼앗아 파직하는 벌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한 관비의 격쟁 때문에 새로 바뀐 관리의 죄를 묻고자 한다면 이는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후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¹⁵⁾
- ③ (李瀾) 제주 기생이 사사로이 물에 나와 闕庭에서 격쟁까지 한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중략) 비록 원통한 품을만한 단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고을에서 조사하여 啓聞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하여 임의로 오고가게 합니까? 이러한 길이 한 번 열리면 관원과 군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기생은 원통함을 호소한답시고 육지로 나오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¹⁶⁾

14) 『備邊司謄錄』 숙종 31년 7월 13일. 昆生之女, 以妓生, 皆有姿色, 爲前後官員之所眇, 妖惡之罪, 不一而足, 人皆憤惋, 而以其干連官家之故, 不敢發言. 至於李喜泰, 因其不近女色, 遂乃相率呈狀, 有此推治之舉.

15) 『비변사등록』 숙종 31년 7월 13일. 島中女人, 元無上京之事, 而何以越海上來而擊錚耶? 甚可怪而固未可知也. 喜泰雖緣私嫌杖殺, 而其罪不過奪告身罷職之罰. 若因其一官婢之擊錚, 而論罪其新遞之官, 非但事體之不當, 其流之弊, 有不可勝言矣.

16) 『비변사등록』 숙종 31년 7월 13일. 濟州妓生之私自出陸, 至於擊錚於闕庭, 實是會所未有之事. 其所防禁之嚴, 比諸西北官妓, 尤嚴, 則雖或有抱冤之端, 自本州覈實啓聞, 可也. 何可任其出往乎? 此路一開, 則爲官員及軍官輩所眇之妓生,

이희태의 죄를 조사하라는 명령에 당시 우의정 李瀾(1645~1721)나 예조판서 尹世紀(1647~1712) 등은 오히려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곤생의 죄를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하나는 곤생 모녀는 관원들과 유착하여 백성에게 해악을 입혔는데,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 이희태가 부임하여 그 동안 쌓은 이들의 죄악을 법안에 따라 다스리다가 세 사람을 죽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섬에 사는 여인은 바다를 건너 올 수 없는데도 올라와 격쟁까지 하였다. 설령 이희태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세 사람을 죽였다 해도 이런 일을 조정에서 수용한다면 육지로 나오는 섬 여자가 많아지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건이 본질과 전혀 무관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뜻밖에 당시 제주목사 宋廷奎(1656~?)의 장문을 숙종이 본다. 임금이 사건에 직접 나섬으로써 이희태의 죄를 덮고자 했던 중신들의 노력과 달리, 결국 이희태는 형벌을 받는다 물론 사건의 마무리는 극형이 아닌 유배형이다.¹⁷⁾

이 사건은 국가 기강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흥미로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았다. 당시 문인들은 장덕과 같은 특이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장덕이 행한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다. 그렇지만 곤생의 일은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퍼진 사건인데도 아무도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것은 곤생의 행위가 사대부들 사이에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굳이 곤생의 행위를 문학적으로 그려낼 수도 없었다. 사대부 자신들의 울타리를 범한 관비의 ‘용감한[혹은 무식한]’ 행위를 옹호하는 글은 고사하고 나서서 꾸짖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托以訴冤而出陞者, 必多有之.

17) 이후 이희태는 해미현감을 역임했다. 당시 암행어사로 파견된 李翊漢은 李湛(임천군수)·鄭東隆(결성군수) 등과 함께 이희태를 貶論 했다는 기록이 1708년 『숙종실록』에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곤생이 당시 사대부들에게 생소한 인물은 아니었다. 앞선 인용문 ①을 보면 곤생은 자색이 있어서 새로 부임하는 관료나 퇴임하는 관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쓰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곤생은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비교적 알려진 기생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희태에게 맞아죽은 곤생의 큰 딸 桂貞은 『九雲夢』의 저자 金萬重의 조카이면서 仁敬王후의 오빠인 金鎭龜(1651~1704)의 총애를 받았던 기생이기도 했다.

김진구는 일찍이 1689년에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1694년 갑술환국으로 호조판서로 기용되어 상경할 때까지 5년 남짓을 제주에서 지냈다. 그 동안에 김진구는 계정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金春澤(1670~1717)이 쓴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潘의 이름은 尹衛로 호남 함열 사람이다. 선군께서 적거할 당시에 반운위는 교수로 있었는데, 매번 술을 갖추어 들고 찾아와서는 심히 즐겼다. 그는 늙었지만 힘이 강성하였는데, 술도 잘 마시고 화살로 열매도 잘 뺐다. 선군께서는 반운위에게 시와 문장을 써준 것도 보았다. 또한 愛妓 桂貞이 있었는데, 선군께서 매번 희화하였다. 또한 시문 가운데에 미치었다. 반이 죽은지 이미 오래고, 계정 또한 사건으로 인해 관에서 장살되어 죽었다고 한다.¹⁸⁾

김춘택은 1706년에 제주에 유배되었는데, 그 때 그는 <謫居感懷>를 지어 유배객의 소회를 시로 드러낸다. 위의 내용은 6번째 시를 쓰고¹⁹⁾ 그에 대한 설명을 붙인 것이다. 김춘택의 선군[김진구]이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당시 제주 교수 潘尹衛와²⁰⁾ 제주 기생 계정과 친했기 때문에

18) 『北軒居士集』 권2. <謫居感懷> 潘名尹衛, 湖南咸悅人. 先君謫居時, 潘爲教授, 每具酒來訪甚歡也. 其老而強力. 善飲能射之實. 已見於先君所贈潘詩若序. 且有愛妓桂貞, 先君每用戲謔, 亦及於詩文中者也. 潘亡已久, 而桂貞又以事被官杖而死云.

19)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每憶往時潘廣文, 官間日叩謫居門. 垂垂霜髮三千丈, 灑灑香醪五石樽. 未怪彎弧知柳葉, 常看薦枕有桃根. 海山兜率憑誰問, 玉碎花飄可更論.”

자신이 그를 기억하여 시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김춘택의 기술을 통해 보면 계정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든든한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던 기생이었다지만, 결국 계정은 아무런 존재 의미도 갖지 못하고 장살되었다. 이 점은 조선 초기 3대 기생 중의 한 사람이었던 西原(지금의 청주 기생 下陽臺)가 문사들의 놀이에 회화화되는 것과도 동일한 양상이다.

서원 기생 하양대는 제주와 용모가 빼어나 많은 문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루는 마침 문사 몇 명이 모여 글을 짓고 술을 마시다가 하양대에게 “오늘은 어찌하여 관차가 어긋났나, 신관과 구관이 마주하니, 웃음도 울음도 감히 할 수 없으니, 바야흐로 사람 노릇의 어려움을 알지라.”를 노래하게 하면서 놀았다. 술에 반쯤 취하고 흥취가 무르익어가면서 하양대의 노랫소리도 구름 속으로 퍼져들었다.

그 때 말석에 앉아있던 한 무사가 마침 참새가 처마 끝으로 날아들기에 탄환으로 참새를 쏘았는데, 탄환은 처마를 맞히고 그 반동으로 튀어나와 하양대의 입으로 날아들어 앞니를 모두 부러뜨렸다. 그러자 좌중에 있던 조대가 시를 지어 조롱하였다. (詩 생략 시를 본 문사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꺾꺾 웃어대며 말하였다. “장하도다, 무사여! 우리들의 시기하는 마음까지 풀었구만!”²⁰⁾

당시 최고의 기생 역시 문사들의 모임에 끼어 심심하게 앉아있던 한 무사의 장난에 앞니가 부러지는 ‘것’일 뿐이다. 앞니가 부러져 아파하는 ‘인간’ 하양대의 모습은 없다. 곤생과 그의 딸 계정 역시 하양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없었다. 사대부들 사이에서 곤생과 그

20) 潘尹衛는 1691년 한 해에 濟州教授로 있었다.

21)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西原妓下陽臺, 有才貌, 所幸多文士. 一日, 文士數人, 適會, 作文字飲, 命陽臺唱, ‘今日何舛次, 新官對舊官, 笑啼俱不敢, 方驗作人難’之曲, 以爲戲. 酒半意酣, 陽臺歌聲遏雲. 有武士, 在末席, 適黃雀投棲簷端, 武士彈之. 丸激簷楣, 反入陽臺口, 折板齒. 座有措大, 賦詩嘲之曰, ‘西原佳妓下陽臺, 歌舞叢中獨擅才, 最恨當時文士會, 適從何處武人來. 金丸忽入風流竅, 玉齒翻成脾脫開, 從此繞梁聲反溢, 空教坐客恨難裁.’ 文士俱撫掌大噱曰, ‘壯哉! 武士. 解吾曹群猜.’”

의 딸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문학으로 형상화하기에는 곤생과 계정은 사대부들의 구미에 맞는 사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대부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사건을 드러내기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김춘택은 자신도 부친을 따라 1706년에 제주로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하고 한순간 계정을 떠올렸을 뿐이다. 제주의 한 집안 세 자매가 맞아 죽은 일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사대부들의 세계, 그 세계에 도전한 제주의 여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다. 격쟁이 있었고 조정이 떠들썩했던 한 사건을 사대부들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았다. 행동은 특이했지만, 그 사건은 자신들의 세계에 反하는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이다.

곤생과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춘택처럼 부친을 매개로 하여 가끔 기억이 날 때, 시의 주석처럼 한줄기 존재로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서를 제외한 어느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저 김춘택의 시의 한 귀퉁이에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그것은 곤생과 그의 딸에 대한 애정이 아닌, 사대부들간의 교감의 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3)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학적 형상화, 萬德

제주의 인물 중 가장 널리 회자된 자는 단연 만덕(1739~1812)이 아닐까 한다. 만덕은 이미 제주에서 신격화된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만덕을 거론하기도 한다. 만덕은 그런 칭송을 받은 만한 자격이 있다. 당시 사대부들이 만덕의 행위에 대해 글을 남긴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덕이란 인물에 대한 포폄이 아닌, 제주의 한 여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에 있다.

앞서 살펴본 장덕과 곤생 역시 만덕처럼 사대부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문학적으로 이들을 그려내지 않았다. 당대 최고의 의술을 가진 자, 희대의 억울함을 가진 자에 대해 당시 문인들은 붓을 들지 않았다. 붓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신기한 일로만 치부할 뿐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간혹 사람을 기억하지만 그것 역시 주변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만덕은 그들과 달랐다. 당시 문인들은 앞다투어 만덕을 그려냈다. 진재교의 조사에 의하면 만덕과 관련한 이야기는 傳漢詩辨題筆記 등 총 13개의 조선후기 문헌에서 확인된다.²²⁾ 또한 근대의 신문지상에서도 만덕을 만날 수 있는데, 야담작가 신정언이 쓴 <當代的 傾國佳人 濟州妓生 金萬德>이나²³⁾ 이병기가 쓴 <財物을 애끼지 안코 던진 慈善家 金萬德 >이²⁴⁾ 그러하다.

만덕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미 김봉옥이 쓴 『제주통사』와²⁵⁾ 제주도에 서 편찬한 『久遠의 女像 金萬德』에²⁶⁾ 이미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만덕의 본관은 김해로, 부친 金應悅과 모친 고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한다.²⁷⁾ 만덕의 몸은 富大하고 키는 長大하였고 曷 눈동자(重瞳)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한다.²⁸⁾

만덕이 曷 눈동자라는 말은 여러 기록에 나온다. 茶山 丁若鏞(1762 ~ 1836)이 직접 불러 보고서 만덕의 눈동자는 曷 눈동자가 아니라는 변증

22) 진재교,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2001 동아시아학 국제학술대회, 성균관대, 2001. 10. 26. 208 ~213 쪽

23) 申鼎言, 「當代的 傾國佳人 濟州妓生 金萬德」, 『조선일보』 1936. 6. 11.

24) 이병기, 「財物을 애끼지 안코 던진 慈善家 金萬德」, 『동아일보』 1940년 1월 12일

25)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2판). 169 ~172쪽.

26) 제주도 편, 『久遠의 女像 金萬德』, 제주도, 1989.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27) 이 기록은 앞의 책에 나오지만, 그 출전을 밝히지 않아 명확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고찰이 요구된다. 김준형의 「만덕이야기의 전승과 그 의미」(『제주도연구』 17, 제주도학회, 1999)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생애를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28) 淡水契, 『증보 탐라지』, 프린트관, 1954.

을 하기도 했다.²⁹⁾ 그렇지만 다산 스스로도 밝혔듯이, 당시 公卿階에 만덕의 눈동자를 두고 떠들썩했다는 점을 두고 본다면 만덕의 눈동자는 겹눈동자로 보였음이 분명한 듯하다.³⁰⁾ 또한 신체는 컸고, 용모는 그리 빼어나지는 않은 듯하며, 가무에도 큰 재주를 보이지 못한 듯하다.³¹⁾ 이런 점에서 보면 만덕은 기생으로서의 자질이 빼어난 편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만덕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만덕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은 단지 겹눈동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신체적인 한 특성에 시선을 두고, 그 특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이 시기 역시 物化된 타자의 대한 시선보다는 여전히 사건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²⁾ 만덕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행적에 있다.

제주민 30%가 죽어가던 최대의 자연재해가 이어지던 1795년. 만덕은 가지고 있던 재산 중 10%는 자신의 친족을 구하고, 나머지 재산을 털어

29) 丁若鏞, 『與猶堂全書』, <重瞳辨>, “濟州妓萬德 捐貲振恤 請見金剛山 驛召至漢陽. 萬德自言厥目重瞳, 公卿轉相傳噪, 余爲招至問 ‘汝目重瞳有之乎?’ 曰 ‘然’” 曰: “凡宮室樓臺草木人物 於汝視一皆成兩乎?” 曰 ‘不然’ 曰 ‘然則汝非重瞳矣. 逼視之 其黑白睛瞳, 了不異人.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大抵瞳之有童, 人以人面照之也. 樓臺照爲小樓臺, 草木照爲小草木, 其有小樣卽所以視此物也. 令瞳重說, 則一瞳各照一小樣, 一物不成兩視乎. 此易知之理也. 卽虞舜項籍之目, 亦必非重瞳, 令果重也. 視物迷錯, 不辨數目, 一廢人矣.”

30) 이 점은 최근 만덕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도 주목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만덕의 신체의 특징은 겹눈동자이기 때문에, 만덕의 캐릭터를 구성함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도 겹눈동자라야 할 것이다.

31) 金熙洛, 『故寔』, <奉教製進萬德傳>, “馬州妓有萬德者 生某里某第 貌不揚 短歌舞.”

32) 박희병의 「'병신'에의 시선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은 '병신'이라는 하나의 물화된 객체를 대상으로 근대와 전근대의 시선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약용이 만덕의 눈동자가 겹눈동자가 아니라고 굳이 변증을 편 것도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면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철학적인 면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제주 도민을 구출한다.³³⁾ 그가 내놓은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명확치 않다. 다만 李羲發(1768~1849)이 지은 <萬德傳>에 “이내 쌓아두었던 600斛을 내어 제주민을 구출하였다”라는 기록과,³⁴⁾ 金熙洛이 지은 <奉教御進萬德傳>에 “600곡을 내어 진휼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만덕이 지출한 돈은 600곡이라 하겠다.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80kg 쌀을 기준으로 할 때 600가마니 정도를 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 양은 제주민이 10일을 지낼 수 있는 분량이었다.³⁵⁾ 정조는 다른 사람이 아닌 기생이 직접 나서 제주 백성을 구제한 것을 기특히 여겨 보상의 일환으로 소원을 물었고, 그에 대해 만덕은 상경하여 금강산 유람을 원한다. 이 때 만덕의 나이 58 세였다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제주민을 구출한 행위는 의로운 행동이며,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조는 국법으로 금지된 ‘제주 여인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올 수 없다’는 조항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만덕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면서, 또한 정치적으로 활용해야할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만덕의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였고, 이에 사대부들은 다투어 만덕의 행위를 써넣었다. 만덕의 문학적 형상화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덕은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였는가? 蔡濟恭(1720~1799)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물가의 높고 낮음을 때에 맞춰 내어놓기도 하고 독점하기도 하기를 몇 십년 동안 하였’던³⁶⁾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에서致富 방법은 객주업과 매점매석이 대부분이었는데, 만덕 역시 이러한 방법에 기댔다고 체제공은 밝힌 것이다. 하지만 沈魯崇(1762~1837)이

33) 체제공, <만덕전>,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34) 李羲發, 『雲谷先生文集』 卷之八, <萬德傳>, “乃出所儲六百斛, 以賑之.”

35) 李羲發, 『雲谷先生文集』 卷之八, <萬德傳>, “延一州民旬日之命.”

36) 체제공, <만덕전>,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쓴 <桂織傳>을 보면, 당시 만덕의 치부 방법은 채제공의 언술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집때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문득 그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어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니, 군의 기생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고, 이로 인해 만덕은 제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자도 있었으나 돌아보지도 아니하더니,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이다.³⁷⁾

심노승은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하기 前年인 1794년까지 제주 목사로 있었던 沈樂涑(1739~1799)의 아들이며, 그 역시 1794년 5월에 제주에 가서 4개월 남짓 머물렀다.³⁸⁾ 따라서 심노승의 기록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실일 개연성이 더 높다 특히 심노승이 직접 “집때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嚮余在島中, 聞德事頗詳]” 라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인다. 물론 이 기록은 소론 심노승이 남인 채제공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만덕을 높게 평가한 채제공과 달리 만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³⁹⁾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심노승의 표현에는 다소 과한 면도 있다. 그렇다 해도 만덕의 치부 과정에는 부분적으로 정당치 못한 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대부들은 만덕

37) 심노승, <계심전>, “…… 嚮余在島中, 聞德事頗詳, 性凶恪,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藏男子衣袴累百數, 每纒纒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丐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하략)” 이 자료는 김영진의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을 참조할 것.

38)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연보 참조.

39)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45쪽.

의 치부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도정에서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만덕은 이미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행위를 한 인물인데, 굳이 정당치 못한 치부 과정까지 밝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만으로 만덕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더욱 유효했던 것이다.

실제 조정에서는 만덕이 아닌 제주 양반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 한 예로 대정현감을 역임했던 高漢祿을 보자.⁴⁰⁾ 1793년 『정조실록』에는 제주목사 李喆運은 장계를 올려 明月里的 高漢祿이 500석을 내어 제주민을 진휼했다는 기록이 있다.⁴¹⁾ 그런데 같은 해 11월 11일자 『실록』을 보면, 고한록이 바친 것은 쌀 60섬과 벼 60섬에 불과한데 500섬으로 보고했다고 하며, 고한록과 이철운을 착각한다.⁴²⁾ 그 조사를 위해 심낙수까지 파견이 된다. 그런데 심낙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한록이 내놓은 재산은 환산의 기준이 달라 수량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라고 밝힌다.⁴³⁾ 실제로 고한록은 사심없이 내놓았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수량을 두고서 알가알부했음을 짐작케 한다. 결국 진휼을 끝마친 결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40) 박용후가 편한 『南濟州郡誌』(상조사, 1978)를 보면 고한록[이 책에는 高漢祿로 되어 있는데, 이는 高漢祿의 오류다]에 대해 “乙卯8月 到任 戊午2月 歸大靜書堂을 設置하여 獎學 養士하였으며 善治로 이름 났음”이라 하여, 1795년 8월부터 1798년 2월까지 대정현감을 역임했음을 밝히고 있다. 신의철이 편한 『外案考』(보경문화사, 2002)를 보면 고한록은 1795년 5월부터 1797년 12월까지 대정현감을 역임했다고 쓰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고한록은 1795년~1797년 사이에는 대정현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조실록』 19(1795)년 5월 11일 조 기사를 보면 고한록은 이미 전 현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本州人前縣監高漢祿), 이는 고한록이 1793년 8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정 의현감을 역임했기 때문에(신의철, 앞의 책) 이처럼 쓴 것이다.

41) 『정조실록』 17(1793)년 5월 22일 조.

42) 『정조실록』 17(1793)년 11월 11일 조.

43) 『정조실록』 18(1794)년 9월 11일 조.

목사 李禹鉉이 장계를 올리기를,

“…… 본주 사람으로 전 현감 高漢祿은 곡식을 무역해 진휼에 보탠 것이 무려 3백석이나 되고, 將校 洪三弼과 幼學 梁聖範은 자원해서 납부한 곡물이 각각 1백석이나 되니 가상하기 그지없습니다. ……”

하니 하교하시기를,

“…… 전 현감 高漢祿이 매번 私財를 내놓곤 하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백성들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니 정말 가상한 일이다. ……”⁴⁴⁾

어찌되었든지 간에 조정에서는 고한록을 1793년부터 2~3년 동안 ‘대번’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제주민을 구휼하고자 했던 인물로 인정한다. 내놓은 곡식의 양이 얼마이든 간에 고한록은 자주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제주민을 구제코자 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곡식을 내놓았다는 사실에 대한 칭찬보다는, 칭찬에 앞서 엄격하면서도 객관적인 규율을 제기한다. 내놓은 곡식의 수량을 잘못 보고했다고 삭직 당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만덕에게 수혜를 준 것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고한록은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한 계제가 없었고, 만덕은 그와 달랐기 때문은 아닌가? 실제 만덕이 포상을 받은 시기는 제주의 양반들의 포상이 모두 끝난 시점인 1796년 11월이다.⁴⁵⁾

44) 『정조실록』 19(1795)년 5월 11일조. “濟州牧使李禹鉉 狀啓曰 …(중략)… 本州人前縣監高漢祿 貿穀補賑 至於三百石 將校洪三弼 幼學梁聖範 願納穀物 各爲一百石 極爲可尙 …(중략)… 教曰 …(중략)… 前縣監高漢祿 每每損財 海外土俗之能知存愛 萬萬可尙 …(하략)” 34쪽 下.

45) 고한록 등에 대한 포상은 정조 20(1796)년 6월 6일 『정조실록』에 나온다. 참고로 1838년 『헌종실록』에는 1827년 이후로 무리배를 모아 일부러 표류하며 통역을 하며 돈벌이에 나선 제주민 고한록을 효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고한록과 제주민을 구휼한 고한록이 동일 인물인지 어쩐지는 두고봐야 할 듯하다. 설령 같은 인물이라면 고한록은 실로 다단한 삶의 역정을 겪었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인물의 상징이 아닐까 한다.

제주의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⁴⁶⁾

그리고 “벼슬아치들이 모두 만덕의 전기를 짓고 그를 노래하는 고금에 드문 일”이⁴⁷⁾ 벌어진다. 실제 채제공, 洪義俊(1761~1841), 이희발, 김희락, 劉在建(1793~1880) 등이 전을 짓고 李家燠(1742~1801), 朴齊家(1750~1806) 등이 한시를 지은 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얼마큼 만덕을 찬양하는 글을 지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 점은 당시 사회적인 기강이 문란했던 상황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던 피지배 계층의 의로운 행동을 찬양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글쓰기 경향과도 일치한다. 채제공이 義婦 <淸風義婦傳>을 지은 것이나 忠婢 <七分傳>을 지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⁴⁸⁾

만덕의 행위는 의로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 일은 다수의 문인들에 의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는 당대 최고의 여의사 장덕이 신기한 의료 행위를 보여주었을 때 흥미로움의 대상으로 접근했던 필기의 글쓰기 방식이나, 사대부의 학대에 분노했던 곤생의 격쟁 사건에 대해 침묵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때 다투어 글쓰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인 셈이다.

3. 제주의 세 여인, 그리고 비애의 섬 濟州道

장덕이나 곤생이나 만덕은 모두 천인이다. 세 명의 천인에 대해 사대부들은 모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46) 『정조실록』 20(1796)년 11월 25일조. “濟州妓萬德, 散施貨財, 賑活饑民. 牧使啓聞, 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47) 김정희, “縉紳皆傳記詠之, 古今稀有也” 제주도편 앞의 책 1989. 82 쪽

48) 이에 대해서는 김준형의 앞의 글(1999)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덕의 경우는 단순한 흥미의 대상으로 접근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의 일회적인 행위에 관심을 둘 뿐이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정약용이 만덕의 겹눈동자에 辨證의 글을 쓰는 방식과도 동일하다. 글을 쓰는 사대부의 시선은 물화된 대상의 한 장면에 멈춰있다. 장덕의 신기한 행위, 만덕의 눈동자는 기실 흥미로운 하나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인들은 흥미와 관심의 대상으로 이들을 바라볼 뿐이다. 문인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인물인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들은 객체로서 문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었다. 문인들에게 그들은 물화된 하나의 대상으로만 존재한 것이다.

곤생은 사대부들의 세계에 도전한 인물이다. 문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대부 세계에 도전한 곤생을 철저히 외면한다. 곤생은 사대부들과 친밀한 관계를 보인 기생이다. 곤생의 말말은 당시 최고 실권자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인데도 맞아 죽었다. 수청을 거부하다 죽은 관기 名花는 그래도 가해자 사대부에 대한 형벌은 있었다.⁴⁹⁾ 하지만 곤생에게는 그마저도 미비했다. 세 딸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했던 기생 이진의 어머니 곤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곤생은 인간이기에 앞서 단순한 ‘것’일 뿐이다. 鄭襲明이 쓴 <贈妓>에는 “이 시는 어느 지방의 수령이 체직되어 가면서 사랑하던 기생에게, ‘내가 간 뒤에는 또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촛불로 얼굴을 지져서 흉하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두고 시를 짓는다”고 창작 후기를 밝힌 바 있는데,⁵⁰⁾ 곤생에게는 이러한 시조차 하나 제시되지 못하였다. 촛불로 얼굴이 흉하게 된 기생의 아픔을 정습명은 감싸주었을지도 모르건만, 곤생의 아픔은 사대부의 세계에 반했

49) 『태종실록』 10년 6월 25일조 全羅道 都觀察使 許周가 羅州判官 崔直之를 파면시켰다. 萬頃縣令 尹江이 어떤 일로 나주에 이르렀는데, 관기 名花가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노하매, 직지가 매를 때려 3일 만에 죽었다

50)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동문선』 II, 1968. 373쪽.

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 이후 김춘택이 이들을 기억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아픔에 대한 기억이 아닌 아버지의 장난감과 같은 존재로만 기억할 뿐이다. 사대부의 세계에 반한 인물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아무 얼굴도 갖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로 남아 있을 뿐이다.

반면 만덕은 사대부들이 다투어 글을 지었다. 만덕은 곤생과 다른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덕의 행위는 사대부들에게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끊임없는 찬사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에서 만덕은 점차 신격화되어 갔다. 야담 작가 신정언은 만덕이 제주에 돌아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削髮爲僧)고 썼다.⁵¹⁾ 신정언은 만덕을 여걸로서의 호탕한 면모와 함께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물화를 버리고 중이 되었다고 밝히고 싶어했음직하다. 그만큼 만덕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만덕을 신격화하면서 만덕은 오히려 제주 민중들에게서 멀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만덕이 재산을 내놓아 제주민을 살렸을 때 “나를 살려준 사람은 만덕일세”라고 노래했던 당시 제주민의 목소리, 근대에 야담 작가 신정언이 만덕이 지닌 인간적인 면을 잃어내려고 했던 점 등과 달리 신화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제주민이 ‘만덕 할망’으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인간 만덕이지, 신화화된 김만덕은 아니지 않은가? 사대부들이 주목한 만덕과 제주민의 기억하는 만덕은 다른 인물일 터다.

제주도는 비애의 섬이다. 독립적인 국가 체제에서, 고려 시대 제주는 몽고와 고려 사이에서, 이후에는 조선과 자치적인 州로서 지내왔다. 三培道로 정해진 최악의 유배지, 제주목사가 된다면 좌천으로 여기던 사대부들.⁵²⁾ 근대를 맞이하던 기로에서는 양제해(1813), 강제검(1862), 방성

51) 申鼎言, 「當代之 傾國佳人 濟州妓生 金萬德」, 『조선일보』 1936. 6. 11.

52) 정조 연간만 따져보면, 1777년부터 1799년까지 총 23년 동안 제주목사로 부임한 인물은 총 29명이다. 평균으로 따져도 제주목사의 평균 재임 기간이 1

철(1898), 이재수(1901) 등에 의해 일어난 민중 봉기. 그리고 근대사의 최대 비극 43. 제주는 늘 비애를 안고 살았다. 지금까지 ‘州’와 ‘道’가 이상하게 하나로 묶인 묘한 이름을 가진 濟州道. 그리고 그 섬에 살았던 제주민.

제주민들은 그 비애를 잊고자 한다. 그 섬에 뿌려졌을 수많은 피와 울음. 그 슬픔을 잊고 새로운 이름을 갖고자 한다. 三多島를 낭만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 섬사람들의 슬픈 목소리보다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부각된 인물에 대해 더욱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시각. 그것은 피해 의식에 대한 제주민의 자위 본능일 수도 있다.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다. 그렇지만 아름다움 이면에 담긴 비애를 부각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 슬픔을 간직한 섬으로 이해하는 것도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비애를 자신의 삶으로 인식하고 살았던, 그 섬이 자신의 삶일 수밖에 없었던 제주민에 대한 또 다른 예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찬양의 대상 만덕도 기억해야 하지만, 격쟁까지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야 했던 곤생을 같이 기억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민은 비애를 잊고자 했다. 제주에서 채록된 구비설화를 보아도 피해자로서의 제주민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⁵³⁾ 슬픔이 일상화되어버린 삶을 살아가던 제주민들은 굳이 이야기로까지 향유하면서 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은 아닐까? 슬픔을 간직하기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메시아장수의 등장

년이 채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실기』(김두봉 편,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3)에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인물이 20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외안고』(신의철, 2002)에는 29명으로 되어 있다. 『외안고』에는 귀향한 이유가 써여 있지 않아 귀임 연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주도실기』에는 그 연유가 써여 있다. 20명 중 13명이 개인적인 사유나 정치적인 문제로 사임 또는 퇴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3) 필자는 『구비문학대계』, 『임석재전집』, 『제주설화집성』, 『제주도전설』, 『남국의 민담』 등을 포함한 단행본과 제주대 국문과와 국어교육과에서 발행되는 『국문학보』와 『백록어문』의 학술조사편을 살펴보았지만 구비설화 중에 슬픔을 간직한 이야기를 극히 적었다.

관심을 가지고, 고대 신화의 한 편에 머물고자 하는 바람이 더욱 컸을 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제주의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구비설화에서 거의 찾을 수 없다. 하나는 신화처럼 향유되다보니 이야기로 향유하지 않았고,⁵⁴⁾ 다른 이야기는 일부러 기억하지 않았다.

제주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는 육지에 올라가 빼어난 의술을 행한 여의사 장덕, 억울하게 맞아죽은 딸의 원혼을 풀고자 했던 곤생, 제주민의 아픔을 못 견뎌 자신의 재산을 털어야 했던 만덕이 있었다. 그리고 장덕에게 의술을 전한 가서, 억울하게 죽은 곤생의 딸 계정·차정·삼정, 만덕처럼 제주민의 기근을 같이 아파했던 양반 고향록 등도 있었다. 이들은 지배층의 기록의 잔편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잔편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잔영을 읽어내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것은 제주섬(濟州島)을 살았던 인물의 그림자이며, 濟州 ‘특별자치’道(濟州道)에 사는 사람들이 초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접수일 : 07.08.25

<참고 문헌>

金春澤, 『北軒居士集』.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李元鎮, 『耽羅誌』.

張漢喆, 『漂海錄』.

崔 簿, 『漂海錄』.

蔡濟恭, 『樊巖集』.

『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85(중판).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CD-ROM 『司馬榜目』.

54) 만덕이야기는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58년 7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고부길에게서 채록한 것 한 편뿐이다.(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4판). 236쪽.)

CD-ROM 『朝鮮王朝實錄』.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3.

김순동, 『韓國故事大典』, 회상사, 1969.

박용후, 『제주도지』, 백영사, 1976.

박용후, 『남제주군지』, 상조사, 1978.

신의철, 『外案考』, 보경문화사, 2002.

고창석,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조사, 1997.

김만덕기념사업회, 『恩光衍世』, 제주도 기념사업회, 2007.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2판).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김준형, 「만덕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1999.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제주도, 『久遠의 女像 金萬德』, 제주도, 1989.

제주문화원 편, 『제주 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진재교,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2001 동아시아학 국제학술대회, 성균관대, 2001. 10.

현승환,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백록어문』 2021합호, 백록어문학회, 2005.



Abstract

A study on three women lived in the Jeju and its literary figures in old documentaries or books / Kim, Joon-Hyeong

This thesis aims to research on three women lived in the Jeju. They, Chang Deok, Gon Saeng and Man Deok, were well known to the gentle class in Choseon. So, records concerning them remained a lot. These article is going to research their literary figures in old records.

The Jeju is a beautiful island. But The people lives in the island, the beauty is another name of sadness. The beautiful scene of island means the barren circumstance of livings threatening their livelihoods. The death are normal for the people live in the Jeju island.

Chang Deok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But there were no records about her without her amazing medical technology. The upper class, the gentle class, only interested in her medical technology. Gon Saeng's three daughters were lost their life by the magistrate of the Jeju island. Gon Saeng tried to appeal their vexations to the king. This case created disturbance in the Imperial Court. But there were no records written by the upper class about this case. The gentle class did not want to criticize the magistrate of the Jeju island. Because he was a member of the same class. From the gentle class's point of view, Gon Saeng and her daughters were not human beings, they were just 'things'. But the case of Man Deok was different from them. The gentle class left a lot of records concerning her. Because she was faithful to the ruler's ideology. After all, she was loved from the upper class but lost love from the lower class.

Outwardly the Jeju is a beautiful but practically, it is a grief island.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people lived in Jeju island with sorrows and anguishes.

Key words: Jeju, Chang Deok, Gon Saeng, Man Deok, sorrow.